

마리보기	2 보도 - 택배 차량 주차비 면제 결정	3 대학 - 제35대 학생회 선출	5 문화 - 실검 서비스 중단, 그 이후	8 체험 -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
-------------	----------------------------------	------------------------------	----------------------------------	------------------------------

흡연 부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불만

우리 대학의 흡연실은 별도의 가림판 없이 재떨이만 구비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흡연실 구비 형태로 인해 많은 비흡연자 학우들이 담배 냄새를 맡으며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2학기 개강 후부터 종강 이후인 지금까지 흡연실 불만에 대한 제보가 많아져 조대신문이 취재를 진행했다.

2018년 흡연 구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중앙도서관 흡연구역이 다시 조성 됐다. 그 이전까지는 취식 공간인 북쪽 출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아 담배를 피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민원이 많았던 터였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중앙도서관운영위

원회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장소인 남측 자전거 보관소 옆으로 흡연 구역을 옮겼다.

그러나 생협서점에 책을 사러온 학우들이 흡연 구역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출입문이 중앙현관밖에 개방이 안 돼 많은 학우들이 흡연구역을 거쳐 중앙현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로 학우들의 불만은 커졌다. 이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박범옥 팀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고 남·북쪽 문을 다시 개방한다면 민원이 줄지 않을까”라며 대처에 어려움을 있음을 언급했다.

학우들의 불만은 여기서 끝이 아



▲ 중앙도서관 남측, 학우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한 흡연구역이다.

니다. 본관에 흡연실이 없어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학우들이 많다는 사례, 미술대학 앞 사람들의 왕복이 많은

주차장 쪽에 개방된 흡연실이 있어 냄새가 퍼진다는 사례,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회관 앞에도 흡연실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

례가 넘쳐난다. 흡연자, 비흡연자가 모두 불만인 상황이다. 이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나건용 팀장은 “학교는 원래 금연구역이지만 구비는 안 해놓을 수 없다”며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다. 학우들을 모두 100%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흡연실 설치 기준은 자율적인 것이어서 흡연 부스의 설치는 강제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교내에 흡연 구역이 조성된 곳은 그것대로, 또 설치되지 않은 곳은 또 그것대로 모두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naver.com

우리 대학 교내 시설 이용에 방역 패스 적용

지난달 8일부터 우리 대학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교내 시설인 중앙도서관, 스테디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원 및 교육학원 포함), 우리 대학 박물관, 우리 대학 미술관 및 김보현미술관, 역사관 등에 대해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해당 시설 입장 시엔 모든 출입

자에 대해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접종 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완치자 확인,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로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PCR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방역패

스 예외자는 예외확인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와 만 18세 이하 학생증을 통해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우리 대학의 방역대책도 연장 중에 있다.

김청우 기자

0821cw@naver.com

우리 대학 프리키즈 팀, ‘글로벌 게임 챌린지’ 금상 수상

지난달 우리 대학 학우들로 구성된 프리키즈 팀이 ‘2021 글로벌 게임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021 글로벌 게임 챌린지’는 게임 전공학생, 취·창업 준비생에게 기존 게임업계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게임을 전공하는 학생, 청년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서 체험하고 플레이해 볼 수 있다.

올해는 약 20여개 팀이 ▲챌린지 부문▲기획/스토리보드 부문▲아트웍 부문에 100여 작품을 출품했다. 이 중 16개의 작품이 상을 수여받았으며 우리 대학 프리키즈 팀은 아트웍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인 ‘가시’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내면에 상처를 지닌 주인공 신우가 종이 연극 속에 들어가 겪는 아름다운 여정과 도전을 그렸다.

프리키즈 팀의 김승민 학우(전자공학부 지능IoT전공·3학년)는 인터뷰를 통해 “게임 개발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잡아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학교 생활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수상작 ‘가시’

“만족할 만한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제야 뭐라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저희의 목표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하나의 예술임을 알리는 것”이라며 그를 위한 첫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포부를 다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뻔한 말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 올 것이며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우리 대학, 스마트 기술 이용한 건축물 해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조창근 교수
(건축공학과)

트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해체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

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대학은 해당 사업에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해체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 향후 2년간 5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도 콘크리트학회 논문상을 받은 조창근 건축공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건축물 해체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연

구할 전망이다.

조 교수는 “작년 6월 9일 광주 학동의 재개발지역 철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겪은 지역사회를 감안하면 이번 연구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우리 대학과 광주시가 건축물 해체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 및 사업 시행에서 향후 국내 선도적 대학 및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우리 대학, 택배 차량 주차비 전면 면제 결정

우리 대학이 택배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공중과 뉴스를 통해 방영되면서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작년 9월 이전 우리 대학의 주차비 관련 규정은 1년에 24만 원인 정기권을 구매하게 하거나, 차량의 종류나 이용 목적과 관계 없이 지정 시간 30분 이상을 머물면 주차비를 받는 것이었다. 택배 기사들은 다른 거래 차량과 달리 절반인 12만 원에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작년 9월 이후 2배로 오른 정기권은 사비를 이용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들은 지정된 시간인 30분이 지나면 캠퍼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을 반복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러한 일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학우에게 알려지면서 총무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내부 회의를 통해 택배 차량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재선 차량통제부 직원은 “택배 차량에만 주차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른 거래 차량과 달리 택배 기사들은 요금을 반으로 낮춰 1년 정기권을 2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받고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2배로 오른 주차비 인상 문제로 인해 택배 기사들이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이 물건을 늦게 받거나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또한 “택배 차량의 주차비를 면제해 주면서 택배 기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며 “교내에서는 택배 분류를 금지하고, 많은 물량이 지체되지 않고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택배 주차비를 면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부 논의에 관해 설명했다. 15년 만에 주차비를 인상한 것은 노후화된 주차 시설의 개선과 유지보수, 인건비 지출, 교내

도로 정비나 청소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1학우는 “코로나 범유행으로 학교에 자주 가지 않아 정기권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학교에 문의해도

‘원래 학생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는 답변만 돌아와서 답답하다”는 고충을 전했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 정기주차 요금

구분 및 대상	구비서류	주차요금
교직원: 조선대학교, 법인, 병원 및 산하학교	• 차량등록증 • 교직원신분증	월 20,000원
조선대학교: 대학원생, 전일제 학부생	• 차량등록증	
조선대학교: 장거리 통학생 시외 거주자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조선대학교: 장거리 통학생 시내 원거리 거주자	• 학생복지팀 문의 후 접수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야간수강생	• 차량등록증 • 재학증명서(야간표기)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시외거주자	• 차량등록증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월 30,000원
언어교육원,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 언어교육원/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자체접수	
직장에 재직중인 학생	• 차량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연장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무료
만학도(40세 이상)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증	
업무차량 및 입주업체	• 본교 소정 양식 1부	
지체장애 학생	• 차량등록증 • 장애자 복지카드	무료

장애학생은 학교생활 향유할 권리 없는가

에베레스트 같은 경사로부터 동아리까지...

우리 대학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강의실의 경우 입구 바로 옆에 단상이 존재하고, 그 앞에는 빼곡히 책상들이 배치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에게 강의실 진입의 어려움을 주곤 한다. 특히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법사회대학·사법대학의 경사로이다.

우리 대학의 ‘에베레스트’

실제 법사회대의 김동찬(행정복지·3) 장애학생과 인터뷰를 한 결과, 동찬학우는 건물 간 이동 수업이 있을 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했다. 그는 “도우미 학생이 있지만, 수업이 다른 경우에는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법사회대로 가는 경사를 올라간다. 이동 중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운전엔 모든 짐을 쏟아야 하기에 우산을 쓰지 못한 채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있



▲사회대로 올라가는 언덕길

다”며 씁쓸한 목소리를 냈다.

장애학생 이동수단 방안은?

과거엔 저상버스를 운행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마주해 장애학생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새빛콜(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1~2시간의 대기근 기본이며 이동거리가 짧아도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빛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장애학생도 즐거운 학교생활 하고 싶다.

장애학생은 이뿐만 아니라 동아리를 만드는 데에도 고생을 하

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블렌딩’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다. 해당 동아리를 등록해 장애학생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교내 생활을 하고 싶지만 30명 이상이 등록기준인 동아리 규정은 21학년도 2학기 기준 40명의 장애학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학생들도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메타버스에서 열린 우리 대학 신입생 캠퍼스 투어

“온라인의 한계를 줄이는 긍정적인 시도였다”

우리 대학 기초교육대학에서 2022 수시 합격자 대상의 대학 사전교육,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town)을 도입했다. 게더타운은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바타 조종과 거리에 따른 자동 통화 연결, 가상공간 디자인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지난 3~5일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환영 인사 및 조선대 A to Z ▲지피지기 백전백승(대학생 학습성향 진단검사) ▲선배와의 대학생활 리얼토크 ‘조선대 다 알러드림’ ▲게더타운 In 조선대학교(온라인 캠퍼스 투어) 4단계로 구성됐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던 전년도 ‘신입생 예비대학’과 달리 올해

는 좀 생중계로 시작해 ▲선배와의 대학 생활 리얼토크부터 ‘게더타운’으로 이동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게더타운에는 우리 대학 본관을 비롯해 중앙도서관, 미술대학, 광주E스포츠 경기장 등 캠퍼스 일부와 로드맵이 현실적으로 구현됐다.

재학생 운영 요원으로 참여한 우리 대학 1학우는 메타버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신입생들에게 캠퍼스를 실감 나게 소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생 1학우는 “인터넷 연결 문제가 잠깐 있었지만, 프로그램도 잘 진행됐고 게더타운에서는 능동적으로 협동해서 캠퍼스를 투어하는 미션이 좋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민영돈 / 편집인 겸 주간_ 신형철

편집국장_ 김성우 / 인쇄인_ 박만수

주 소_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 062-230-6162 / FAX_ 062-234-3014 / 행정실_ 062-230-6166

위축되는 학생회, 그리고 새로운 학생회의 선출

유민우 총부학생회장 “여러 목소리에 집중하겠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은 학생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생회는 존폐 논란의 대상이 됐고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는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넘쳐난다.

학우들에게는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권리가 있다. 학우들이 선거를 통해 학생회를 선출했고, 학우들이 없었다면 학생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학생회임에도 학우들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욕까지 담아 글을 올리고 그런 학우들에 의해 학생회는 더 위기의 늪 속으로 빠져든다.

실제로 작년 9월 에브리타임에서 ‘총학생회 공약 다시 보고 가세요’라는 게시물이 화두에 올랐다. 하지만 댓글창에는 ‘대학생 아닌 줄 알았다’, ‘나가 00라’, ‘공약 00지 하고는’ 운운하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고, 이것들이 실시간 인기글에 올라 게시물, 댓글 좋아요 개수가 점차 많아지는 일이 있었다.

학생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학우들이 학점을 취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학생회장 선거와 같은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데에도 있지만, 학우들이 학생회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통의 실패 때문인 경우도 많다. 소통이 부재한 탓에 학생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 채 비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공약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학우들은 단지 이 공약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만을 따지는 경우도 많다.

올해 총학생회로 선출된 ‘어시스트(이하 총학)’ 또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위한 학생회’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회가 주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밝혔다. 총학은 이번 학생회 명칭도 이런 의미에서 ‘ASSIST’라고 지었음을 언급했다.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두며 학우들에게 영향력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약속한 것이다.

총학은 지난해 12월 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투표로 총 1만7660명의 유권자중 54.2%인 9571명이 투표해 77.63%(7430) 명의 득표율로 총학생회장에 송호찬(기계공학·4) 학우가, 부회장으로는 유민우(저자공학·4) 학우가 당선돼 탄생했다. 이번 총학생회는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소통, 언택트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총학은 가장 먼저 ‘시설’ 공약에 대해 말했다. 동아리실, 연습실,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우들을 위해 학생 문화공간을 ‘어시스트’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공약은 현재 총동아리연합회와 회의를 거쳐 학우들을 위한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다. 또한 대학 본부측과 협의하여 현재 학생회관 1층 융합창원지원센터를 학생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편 중에 있



▲우리 대학 총학생회 송호찬(왼쪽) 회장과 유민우 부회장

며 다음달 중 완공 예정이다.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또한 내놓았다. 총학은 법사회대 뒷길 등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어두운 곳과 위험 지역을 조사하여 가로등 30개, CCTV 12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이 많은 학생회관이나 학생회관 뒤편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 확보 뒤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교육’ 공약이다. 총학은 가장 먼저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에브리타임에는 이 공약을 두고 ‘애초에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떠드느냐’,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될 리가 없지’라며 총학의 공약을 비판했다. 총학은 이에 미리 대학 본부와 논의하여 예산을 확보했고 업체를 신중히 선정하는 중인 상태라며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 및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도입에 의의를 두고 다가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육 공약으로 수강신청 여석 확대를 약속했다. 총학은 2월부터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부족 여석을 확인할 예정이다. 졸업 여건에 필요한 필수·일반 교양 과목 조사, 단과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조사한 후 자리가 부족한 과목의 강의실 및 자리 개수를 파악할 것이다. 총학은 강의실에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강의실 자리를 일정하게 맞출 예정이다.

총학은 ‘복지’ 공약 또한 약속했다. 우선 시험기간에 맞춰 1~2주간 광주 시내버스 운

행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총학은 우리 상황만 고려하여 시내버스 시간을 늘리면 광주광역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돼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에 광주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안건을 올리고 다른 학교들과 협의를 통해 함께 진행할 계획임을 말했다. 또한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대학 자체 버스를 대절하여 순환 노선을 나눠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복지 공약으로 의료공제비 30% 감면을 약속했으며 기숙사 공용시설 관리를 언급했다. 총학생회와 기숙사 자치위원회와의 매 분기 간담회를 통해 학우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현재 파악된 것은 호실 배정 선착순, 룸메이트 랜덤 배정, 체력단련실 노후화, 휴게실 관리 미흡 등이 있으며 이는 기숙사 자치위원회와 협업할 것임을 밝혔다.

‘문화’ 공약으로는 빚고을 보은재 부활, 같이 즐기는 카타르 월드컵 국토대장정 기획을 언급했다. 빚고을 보은제는 코로나 확산 여파에 의해 현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5월에 진행된 축제를 9월로 연기하고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비대면 및 대면 행사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대장정은 1학기 종강 직후 발생할 자취생과 기숙사생 방 문제, 계절학기를 듣는 학우들의 진로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기에 여유 있게 8월로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가장 중요한 ‘소통’ 부분에서는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 개설과 총학생회 간담회를 약속했다. 총학생회 유튜브로는 활동 내역과 공약 이행 등을 VLOG 식의 영상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약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달 내에 이뤄질 예정이고 학우의 여러 질문에도 답해줄 것임을 밝혔다.

‘언택트’ 공약으로는 총학생회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해 비대면으로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획을 언급했으며 학우들의 필요 생활 물품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전 총학생회 ‘정’은 기숙사생들의 수요가 많아 자취생들의 생활용품 지원하지 못했지만 ‘어시스트’는 작년에는 기숙사생 중심으로 복지가 이뤄진 것에 반해 이번에는 ‘집’이란 단어에 초점을 뒀다. 모든 학우가 대상이 되는 복지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 후문 장미상인회 전체와 10% 제휴 할인 계약을 맺었으며 사용 방법을 카드뉴스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또한 교내 라디에이터, 에어컨, 환풍기 점검, 자격증 제휴업체 확보, 총학생회 E-SPORTS 대회 개최, 총학생회 주관행사 스태프 참여시 문화마일리지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또한 취업 박람회 개최로는 작년의 취업박람회를 바탕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교내 취업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1·8극장이나 대운동장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개최할 예정임을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회의 훌륭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무너지고 쇠퇴하는 학생회를 되살리는 것은 학우들의 선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민우 부총학생회장은 “항상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목소리에 집중하고, 물음에 답하며, 도움을 드리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이러한 다짐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학생회가 강력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배후에 학우들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시대다. 그래서 더욱 학우들은 학생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에 치중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등록금, 교육 그리고 복지 등의 논의를 주도하며 대학 구성원을 대표하고 또 연대한다는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다. 학생회가 그간의 관례에 의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존재하길 바란다.

김성우 기자

soengwoo55921@chosun.kr

2022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들

임인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한다. 개선된 병역제도부터 임신부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게임 중단제 폐지까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도를 조대신문 기자들이 전달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올해부터 병역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강원, 제주지역과 같이 병역판정검사가 연중으로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병역검사회수에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2~3회로 확대 시행한다.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검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정신·심리 상태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밀심리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창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그 기준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국군 장병들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빛 기자 pencil@chosun.kr

패밀리

10년 만에 ‘게임 중단제’ 폐지, ‘게임 시간 선택제’ 일원화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20일, ‘게임 중단제’가 도입·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게임 중단제’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다.

‘게임 중단제’는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포된 개정법률에서는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부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김민아

저출산 극복 위해 새롭게 생겨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 수당 신설 ▲첫만남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총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도 도입된다. 또한,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 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배우자 지급)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짐(양육자 지급(24개월))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9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22~)
지원 대상	'22.1.1. 이후 출생아	'22.1.1.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월 30만원	월 10만원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송입	계좌에 현금 입금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가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민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지원 금융 제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제도에는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경쟁력 있는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약 42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천 600만 원(종합소득 2천 4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의 청년이 대상이다. 시중 이자에 대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총급여 5,000



▲신년사로 청년 금융 지원을 언급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만 원(종합소득 3천 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위의 제도들은 소득 수준별로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 자금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은 개인의 납입금 지급 능력, 펀드 수익률과 운용 보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허영아

이달의 포토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해당 공사현장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렸다.

신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등 고려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학동 철거건물이 붕괴한데 이어 이달 11일 화정 아이파크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 현장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고 이후에는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면서도 그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결국 지난 17일 정몽규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물러나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브리핑에서 사고 건물 철거 재시공·감독 부실 여부 감사·공공 감리단체 도입 등의 대책을 후속 대책으로 약속했다. 또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실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타리 안

(실시간 검색어)

실검 서비스 중단 이후 유사한 사이트나 SNS 통해 이슈 접해

지난 2021년 2월 25일,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2005년 5월 ‘다양한 사용자들의 관심사’라는 정보로서의 가치에 주목해 처음 시작된 실검 서비스는 네이버가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실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네이버 측에서는 트렌드 변화를 이유로 들어 실검 서비스 종료를 알렸지만, 그간 실검 서비스는 조작 논란, 여론 조성, 광고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었던 터라 존폐 위기에까지 놓이자 자연스럽게 서비스 종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검 서비스가 사라진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까?

막대한 영향력 지닌 실검 서비스 종료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6%가 뉴스/정보 검색 시 실검을 참조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던 네이버 실검은 주요 이슈와 여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연예인들의 이슈부터 시작해 마케팅, 정치 이슈, 재난이나 사고 등 수많은 정보가 실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매일 뉴스를 찾아볼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실검은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식통 역할을 톡톡히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실검의 영향력을 이용해 마케팅에 뛰어들면서 점차 실검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 갔다. 거기에 실검으로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가 조작돼 메인 검색어를 차지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실검 상단에 오르지 않기 위해 실검 순위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사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하거나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명 어뷰징 기사 역시 논란이 됐다. 일련의 부작용 속에서 대중들의 실검 신뢰도도 점차 줄어들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를 반복하던 네이버 실검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에 힘써왔다. 지난 2017년에는 급상승 트래킹 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검색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다가 하면, 지난 2018년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급상승 검색어로 서비스 명칭을 바꾸며 선정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실검을 개편해 ▲이슈별 묶어보기 ▲이벤트·할인 ▲시사 ▲엔터 ▲스포츠 등의 관심사와 연령 항목을 통한 검색어 설정으로 맞춤

■ 사용자의 검색어는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사용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전에는 잘 드러나기 어려웠던 롱테일 정보가 큰 이슈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급상승 검색어>는,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2월 25일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모바일 네이버홈의 '검색차트'판도 함께 종료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검색어 데이터는 다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급상승 검색어>의 취지는 <데이터랩>을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상승 검색어>에 보여주신 큰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형 실검 서비스를 구축해갔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검색어 차트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개인별로 차별화되도록 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에는 총선 기간 동안 실검 서비스를 중단해 정쟁과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검이 사라지고 난 후

네이버는 사용자들의 검색 다양성 증대를 위해 제한적인 실검을 폐지하고 다양한 시점을 사용자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창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이후 실검을 대체하기 위해 네이버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소상공인 창업/경영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확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넓혀나갔다. 현재는 ▲쇼핑 인사이트 ▲검색어 트렌드 ▲지역별 관심도 ▲카드사용통계 ▲뉴스 댓글 통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

다.

다만 네이버의 생각과는 달리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 파악이 어렵고 네이버 홈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한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검 서비스가 종료된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이들은 주요 이슈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 법사회대학에 재학 중인 ㄱ 학우는 “뉴스를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니라 실검을 통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했었는데 실검이 사라지고 나니 SNS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검의 가장 큰 장점은 뉴스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사회, 정치, 연예 등의 주요 이슈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실검이 사라지자 대중들은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는 실시간 트렌드를 알려주는 트위터나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실검이 사라지자 실검과 유사한 형태를 띤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우리 대학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ㄴ 학우는 “실검을 잘 이용했던 한 유저로서 실검이 사라지자 이슈를 찾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실검과 비슷한 ‘시그널(Signal)’이라는 앱을 네이버 앱에 포함시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실검 서비스가 중단된 후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들이 실검과 유사한 형식을 띤 ‘시그널’ 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트를 앱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네이버가 실검 서비스 종료를 이유로 들었던 것은 ‘풍부한 정보 속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 소비를 원하는 트렌드 변화’였다. 정보를 얻는 데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 우리는 실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과연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자.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실검 서비스가 사라지자 이슈 전달 속도가 빠른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검 서비스의 편리함을 잊지 못해 그와 유사한 사이트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SNS는 넘쳐나는 정보를 퍼 나르는 것으로 분주하기에 그만큼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또한 더 급속도로 퍼지고 형성되기 마련이다.

포털 속 실검 서비스가 가진 위력이 컸던 만큼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대체재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실검이 중단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화 선동, 여론 형성, 광고 마케팅으로 난잡하게 변해버린 공간이 바로 실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포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 속에서 자리 잡았던 실검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기억에 남은 굵직한 다양한 사건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실검이 사라지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기를 원한다. 또 그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실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네이버가 실검의 대체 서비스로 내놓은 데이터랩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찾은 사소한 해결책이라고 해봐야 SNS나 실검과 유사한 사이트 이용뿐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것이 옳은 정보인지 판단하는 능력도 길러야 할 것이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교수칼럼

재난인문학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

1. 리베카 솔닛은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 중인 재난'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재난 속의 희망)), 자본주의라는 재난 속에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때면 새로운 추가 재난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재난이란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국민이거나 국가다. 그중 국민의 피해는 세 층위에 걸쳐진다. 생명, 신체, 재산. 즉, 죽거나, 다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마도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세 개념은 피해 정도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사망, 상해, 손해 순으로 위중한 피해라는 것이겠다(이 셋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순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지 않은가? 왜 신체인가. 다시 말해, 왜 정신이 아닌가. 이 경우 신체는 정신을 포함하는 개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난 피해 산정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는

카운트되지 않는 것인가? 이 누락은 사소해 보이지 않는다. 재난의 정신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거나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렇지 않다. 정신적 피해? 인정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15조 2항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심리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조가 이렇게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 작년 6월이다.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구체적 제도 마련이 시작된 것이 이렇게나 최근의 일이란 뜻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신적 피해들이 부정당해 왔을까. 재난의 정신성, '재난인문학'이 탐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

2. '기본법'은 재난의 종류를 나누는 관점도 알려준다. 2004년에 '기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재난'은 세 개의 목(目)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화산·적조,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 뼈대가 크게 달라진 것은 2013년 8월 6일 개정안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채택되면서다. 자연재난은 자연적 원인(재해)을 갖는 전통적 재난이다. 사회재난은 사회적 원인(사고)을 갖는 현대적 재난이다. 이제 '가' 항목은 '자연재난'이라는 당연한 이름을 달았고, '나'와 '다'는 '사회재난'으로 통합됐다. 애초 '다'에 속해 있던 전염병이 ('가'가 아니라) '나'와 통합되면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만하다. 전염병의(그리고 감염병의) 사회적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재난이 자연적 원인을 갖는다는 말은 자연의 원인은 자연이라는 동어반복적 진술

이다. 원인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 틈에서 장황하는 것은 가짜 원인을 상정하고 재난을 그 원인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하는 유사 종교적 서사들이다. 사회재난은 '사고'로 시작되어 '사건'으로 끝난다.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 모순, 적대를 가시화하는, 즉 진실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의 '사건'이다. 사고로 축소하려는 힘과 사건으로 확대하려는 힘이 재난을 두고 다툰다. 자연재난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이비 서사와 맞서면서 사회재난을 사건화하는 급진적 서사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재난인문학의 임무다.



신형철 교수
(문예창작학과)

서석대

멀고도 가까운 '식구'라는 존재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밥은 먹었어?' 그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사치레를 건네거나 약속을 잡을 때 '밥'이라는 매개체는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왔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은 밥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늘 밥에 연연하는 우리임에도 정작 내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끼를 대충 때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더 많다. 밥을 차려 먹기 귀찮아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밥보다 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는 늘 뒷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밥을 먹는 시간이 다른데 굳이 같이 먹어야 하나?', '음식 취향이 다르니까 따로 먹지 뭐'. '혼밥'을 주로 하다가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길 때가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와 시간을 맞추고 메뉴를 고민하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 차라리 혼자서 밥을 먹는 게 편하다고 여기기까지 한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자취를 시작한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자취생들에게는 강제로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다.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어릴 적 가족들과 한데 모여 음식을 만들어 상을 채우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나열하거나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 끼를 해결하는 시간이 조

금은 그립다.

배달 음식, 혼밥으로 급하게 배를 채우기에 바쁜 요즘 사회에서 우리는 귀찮음을 해소하고 편리함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바빠 소중한 한 끼를 너무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일컫는 식구. 자취생인 나에게 '식구'는 멀고 까마득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끼니를 걱정하고 밥 한 끼 같이하자는 연락을 돌린다. 어쩌면 이미 나에겐 같이 살진 않더라도, 자주 만나진 않더라도, 밥 한 끼 같이 할 요즘 식의 '식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석대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며 날로 발전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때로는 긍정적이었던 관계의 시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아닌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기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책이 높은 분이기' 등 스스로 선을 긋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 무조건적인 을을 자처하거나 내 생각과 감정을 2순위에 두곤 했다.

돌아보면 그런 회회적인 태도는 나에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다. 상대에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본성을 감추어야 했고 이는 내 감정과 의견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솔직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탈이 난다. 어느 한쪽은 을을 자처하며 열등감 내지 자아의 불안정함에 휩싸이게 되고 다른 한쪽은 독단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다. 이런 기울어진 관계에서 삭혀두기 시작하는 불편함은 뒷말과 스트레스가 되고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

나는 불쾌하게 끝났다고 느꼈던 모든 사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봤다. '그때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내 생각을 정중히 전했다면' 적어도 서로 찝찝함을 남기거나 단절하고 말았던 극단적인 결말을 피했을지 모른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퍼즐처럼 들어맞는 사람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퍼즐과 다른 점은 조율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맞춰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관계란 한 편의 일방적인 '맞추기'가 아니라 서로 '맞춰가기'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아와 자존감은 지키되 솔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신 소통의 방법을 고심해보자.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열쇠다. 다양한 소통의 자세를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수록 여러 상황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 관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결국 인간관계는 하나의 지속적인 관리대상이기에 의식적으로 단련하며 유연하고 건강한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보자.

사 설

강사 강의 배정과 관련된 학교 당국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광주MBC에서 지난 12월 8일 보도한 내용 (“택배 차량에 ‘주차비 내라’… 부담 떠안은 기사들”)을 통해 우리 대학이 그동안 교내에 진입한 택배 차들에게도 30분 무료 주차 시간이 초과되면 예외 없이 주차 요금을 부과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차 요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택배 차량들은 30분 안에 배달을 마치기 위해 급히 움직여야 했고, 30분을 넘길 것 같으면 학교를 빠져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이다. 다행히 본지가 이번호(2면)에 보도한 바대로 이제는 택배차량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이미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생불편사항신고’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이다. 학교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학교가 상하차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주차 공간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학교가 아니라 출발지인 택배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30분 안에 배달을 마치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야말로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구성원이 불러들인 차량의 주차가 구성원의 주차 공간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이런 행정이 왜 지금까지 행해진 것일까. 12월 8일 리포팅 후반부에 기사가 붙인 “차량의 종류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주차 요금…”이라는 구절 속에 답이 있다. ‘무차별적인’ 행정 말이다. 다양한 차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행정의 부담이 되므로 ‘예외 없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밀어 붙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행정 집행 주체는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존중 받아야 할 특수성이 무시될 경우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행정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해도 좋을 이 문제를 재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일 교무처는 각 학과에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수, 초빙직원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5시간 미만으로 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사 세척 6조에 따르면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은 ‘6시간 이내’로 돼 있다. 이 세척에 따라 강사에게 최대 6학점(두 과목)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해당 공문에 따르면 ‘5시간 미만’

으로 돼 있으니 앞으로는 사실상 한 과목만 배정해야 한다. 강사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타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들이 받는 한 과목 강의료는 차비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채용되어서 강의 중인 강사들, 이미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이 끝난 강사들에게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이유는 더 स्पष्ट하다.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강사들에게 과목 박탈을 통지해야 하는 학과의 입장에 난처하고 갑자기 책임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강사 의존도가 높은 학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다. 왜,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행정이어야 하는가.

데스크에서

학보사인의 정도(正道)

얼마 전 조대신문의 보도 기사 주제를 고민하던 중 주변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우리 대학의 노후 시설과 장치 등을 조사 및 취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가끔 지인들이 나에게 학교의 부족한 점을 조사해 학우들에게 알리는 것이 학보사의 의무라며 여러 기삿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제대로 취재해 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나는 잠시 ‘기자의 방향성’에 대해 골몰했다. 항상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만 찾던 나였기에 이번에도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경향적인 기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기사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끔 드러나 신문 발행 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

나는 학보사의 언론인이기에 독자들에게 언론의 경향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에 대해 우의적으로 생각해본 것이다. 언론

이 잘못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거침없는 논조로 전달하는 것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본분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성격이 기사의 방향성을 흐트리고 있다면 어떨까.

더구나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터라, 지금 내가 다루지 않으면 나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것만 같았다. 당연히 언론마다 특색과 관점이 있으며, 이를 숨기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보도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부분, 보도에서 위와 같은 사건을 표하는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접한 그 어떤 언론 보도도 노골적으로 방향성과 경향성을 내세우며 기사를 신지는 않았다.

‘몇 개의 공약을 내걸었는지가 아니라 몇 개의 공약을 실천했는지를 봐야 한다’. 1138호 조대신문 3면 기획 보도에 실린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문장은 보도의 객관성

과 사실의 주관성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소한 사례마저도 따지자면 따져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현 언론은 사실에 충실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세심한 언어로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학보사는 자신들만의 전위적인 형태를 시도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학부생이라는 위치에 입각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한 명의 기자이자 학생으로서 나 역시 이를 크게 긍정한다. 이를테면 1138호 9면에 실린 ‘1일 1끼 비건식 체험하기’는 학보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현장 밀착형·체험형 기사가 가진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학보사도 보도의 경향성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명이 개인이자 동시에 언론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언론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언론인’으로서의 보도에 경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만 ‘학보사인’은 조금의 경향성을 포용하고 학우들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 장점은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편안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다. 편집국장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극대화시키고 싶다.



김성우 편집국장
seongwoo55921@chosun.kr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언택트 미니
취업박람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인기업에게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학생에게는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교육대상** : 취업을 준비하며 채용정보가 필요한 조선대학교 학생들
- **일정·장소** : 2022. 1. 24(월) ~ 2022. 2. 2(수)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료 게시(비대면)
- **신청방법** :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작성
▶ LINC+ 사업단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프로그램 조회 및 신청
- **교육내용** :
 - 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
 - 이미지 메이킹
 - 면접 스피치
 - 기업 분석과 NCS 파악
 - 이력서 작성법





일회용품 없는 하루하루로 채운 일주일

일회용품 사용을 반성한 하루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을 간 날이었다. 글램핑장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다 제공돼 있지만 위생을 생각해서 숟가락, 젓가락, 포크, 종이컵, 고기와 국 그리고 쌈 채소를 담은 각기 다른 크기의 접시 등 개인적인 식기류는 제공돼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일회용품으로 구매해갔다. 그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퇴실 시간이 다가왔다. 퇴실 전 모든 쓰레기를 나눠주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했기에 우리는 하루 동안 사용한 쓰레기 전부를 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봉투 하나를 쓰레기로 가득 채웠고 아직 담을 것이 남은 나와 친구들은 무엇이 봉투를 이렇게 가득 채웠나 궁금해 봉투 안을 들여다 봤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밤새 사용한 일회용품이 한가득했다.

사실 전날 한번 사용한 그릇은 재사용하지 않고 음식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접시 또한 바꿔가며 사용했다. 심지어는 이미 사용해 양념이 묻은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꺼려져 음식이 바뀔 때마다 젓가락, 숟가락 또한 바꿔 사용했었다. 하루 동안 내가 만든 쓰레기양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됐다. 아무런 생각 없이 쓰레기를 마구 만들어 낸 것 같아 마음이 한결이 편치 않았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주일을 시작하다

글램핑장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양에 놀라고 많은 일회용품을 가벼이 쓰고 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평소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고 '카페 갈 땐 텀블러를 챙겨 가고 마트 갈 땐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되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회용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다짐한 첫날, 여느 날처럼 세안 후 화장솜을 꺼내 토너를 적시려는 순간 '내가 쥐고 있는 화장솜 또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니 일회용품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찾아보니 화장솜 또한 일회용품이었고 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면화장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습관적으로 집은 화장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나의 다짐은 하루 만에 실패로 돌아갈 뻔했다.



▲밀폐용기에 받은 햄버거 세트



▲음료를 포장할 시, 텀블러를 대여해주는 '송정마을카페이공'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하다

친구와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햄버거 세트를 먹을 계획을 세웠다. 2개의 햄버거를 담은 2개의 밀폐용기와 2개의 감자튀김을 담은 2개의 밀폐용기, 그리고 음료 두 잔을 담은 2개의 텀블러를 포함해 총 6개의 용기를 챙겨서 집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빨대, 냅킨, 감자튀김을 담은 종이컵, 햄버거를 감싸는 랩지 등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 뒤 카운터로 가 가져온 밀폐용기와 텀블러를 보여드리며 여기에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를 담아달라고 부탁드렸다. 내 부탁을 들은 종업원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알았다고 답했고 나는 용기들을 건네 드린 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내 주문번호가 들렸고 '전달이 정확히 안 됐으면 어쩌하지'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부탁드린 대로 음식이 나왔다. 평소에 먹던 햄버거였지만 밀폐용기에 담아 먹은 햄버거는 훨씬 맛있고 값지게 느껴졌다. 또한, 다 먹지 못한 감자튀김은 따로 포장을 부탁드리지 않아도 밀폐용기의 뚜껑을 덮고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 음식도 남

가지도 않고 환경도 지켜 일석이조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밀폐용기를 건네는 것에 마치 특이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몸이 웅크려지며 망설이기도 했지만 나의 행동이 매장에 있던 손님, 혹은 종업원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이제는 더욱 많은 사람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동참해 당당하게 밀폐용기를 꺼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송정마을카페이공'에 가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을 운영 중인 송정리에 있는 작은 카페 '송정마을카페이공'에 갔다. 이곳은 손님에게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머그잔과 스테인리스 빨대를 제공하고 책을 빌려주는 것처럼 텀블러를 빌려주는 '텀블러 대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어 음료를 포장할 시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제공한다. 또한, 비건을 지향하는 카페이공에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문한 말차라떼에 두유가 들어가 더욱 고소했다.

카페 한편엔 제로웨이스트샵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판매하는 물건은 손수건, 보자기, 면마스크, 밀랍으로 만든 랩, 옷칠 나무로 만든 포크와 수저, 대나무 칫솔대로 만들어진 칫솔, 비누 자투리로 만든 리배칭(rebatching, 재가공) 비누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배치된 제품을 보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이곳은 주방물비누, 주방물세제, 주방가루세제(구연산,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등),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리필해주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1월 말엔 화장품 리필스테이션을 진행할 계획 중이며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를 필요한 만큼 리필해 갈 수 있게 열 계획이니 대학생과 자취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판매 중인 식물수세미와 천연 라텍스로 만든 고무장갑, 친환경 주방물비누, 대나무로 만든 칫솔과 고체 치약을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가 구입한 고무장갑을 끼고 식물수세미에 친환경 주방물비누를 적서 설거지했는데 식물수세미의 단단한 섬유질 덕에 식기를 닦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구석구석 잘 닦여 매우 만족스러웠다.

일회용품 없는 하루하루 도전한 일주일을 마치며

호기롭게 계획했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 다짐을 지키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외출할 때에만 조심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는 것에 매번 놀라곤 했다. 또 나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외출을 꺼리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뿐이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만큼 일상 곳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일주일을 계기로 다회용품을 생활화하면서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하길 바라본다.

김청우 기자

0821cw@naver.com